***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9일 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7호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2기 지도체제 출범

민주노동당 2002년 정기당대회 개최 - 권영길 대표 선출

지난 3월 16일 서울시 능동 소재의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민주노동당의 제2차 정기 당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당대회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진보변혁운동의 지형을 확대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02년 양대선거 승리≫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라는 두 개의 휘장이 내려진 당대회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430여명의 대의원과 500여명의 일반 당원들의 참관으로 발디딜 틈이 없이 대회장을 메웠다.

4시 30분부터 진행된 당대회에서는 2001년 정기당대회 결과 보고로부터 시작되어, 2001년 사업보고 승인, 결산 감사보고 승인에 이어 당대회의 관심이 집중된 당 대표단 선출이 이어졌고 밤 10시 2002년 사업계획안, 양대선거에 관한 건 등 대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으로 새벽 3시에 되서야 대의원들의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해산하였다.

창당 2주년을 맞은 한국민주노동당은 당 출범시 220 명이었던 대의원들이 624명, 23개 지구당이 85개로, 현재 21,000 여명의 당원을 확보하여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런 성과와 함께 지자제 및 대선국면을 앞둔 민주노동당 당대회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당대표 선거였다.

진보정당 최초의 경선에서 기호 1번 권영길 후보가 찬성 294표, 기호2번 정윤광 후보가 찬성 131표를 얻어 권영길 후보가 제2기 민주노동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당 부대표에는 김태일, 김혜경, 천영세, 최순영씨가, 사무총장에는 단독출마한 노회찬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이 날 재선된 권영길 대표는 ≪이 땅의 진보정당이 요원하다는 보수정당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꿀 진보정당임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노회찬 사무총장은 ≪전설적인 사무총장이 되겠다≫는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2002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양대 선거와 재창당 사업 등이 논의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의 피곤함도 아랑곳없이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이 계속되는 열띤 분위기는 당원들에 의해 움직이는 당의 진지한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들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저지와 진보적 구조개혁의 실현을 위한 투쟁≫, ≪진보 대연합과 민주노동당의 혁신 강화를 통해 대대적인 정치활동 전개≫, ≪양대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승리하는 선거운동에 앞장서 노력할 것≫과 새로운 발의로 채택된 ≪미국의 한반도 자주통일 분열책동 저지≫의 결의문 채택으로 새벽 3시가 되서야 끝이 났다.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및 참관인 등 1,000여 명이 함께 한 대회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찼다.

변현단
대자보 2002/03/17

800만 총폭탄은 미제를 남김없이 소탕할것이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가 남조선의 호전세력들과 함께 벌리려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계획적인 북침전쟁도발행위로, 조선민족에게 핵전쟁의 재난을 들씌우기 위한 핵시험전쟁으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 부실수 있는 무적강군인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청년전위들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 평화가 엄중히 위협 당하고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무모한 북침전쟁소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 청년학생들은 800만의 총폭탄이 되여 침략자 미제를 한놈도 남김없이 소탕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성명은 해내외의 모든 청년학생들이 온 민족과 함께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3월 17일

미국상품 불매운동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학가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대학가에서 미국상품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YWCA와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등 9개단체는 18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광장에서 ≪미국제품 불매운동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등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미국이 힘을 앞세워 F-15 전투기의 수입을 강요하고 철강제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WTO의 세계무역질서를 파괴하는 무역전쟁을 선포했다≫며 ≪이에대한 자위권의 일환으로 여성과 청소년, 청년학생,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으로 미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도 16일과 17일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옆 맥도널드 가게 앞에서 ≪무기강매와 전쟁, 한미일 군사훈련 반대 시민행동 선포대회≫를 가졌다. 또 부산대 총학생회는 지난 11일부터 학교정문 앞 맥도널드 가게앞에서 ≪미국 반대.맥도널드 불매 운동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2/03/18

지면안내

2 노작
•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

4 세기와더불어
• 4장 6절 혁명시인 김혁 (1)

6 칭송
• 붉은기 수호자
• 선군혁명영도의 새 역사

7 구국의 소리
•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 구국의 소리 뉴스
•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오늘에 다시본다
• 높아가는 미국 핵전쟁계획 규탄의 목소리
• 전세계의 비난을 받는 ≪악의 축≫발언

10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17일 보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학학회 고소장

12 평양방송
• 전국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

13 아리랑뉴스
• 민노당 - 당대표단 선출,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 방침 확정
• 자위대 해외반테러활동 6개월 연장
• 맥팔랜드, 영장신문 또 불출석
• 사회단체 지도자들 노상 단식농성 돌입
• 발전산업 민영화 철회 촉구
• 공기업 국영화는 지켜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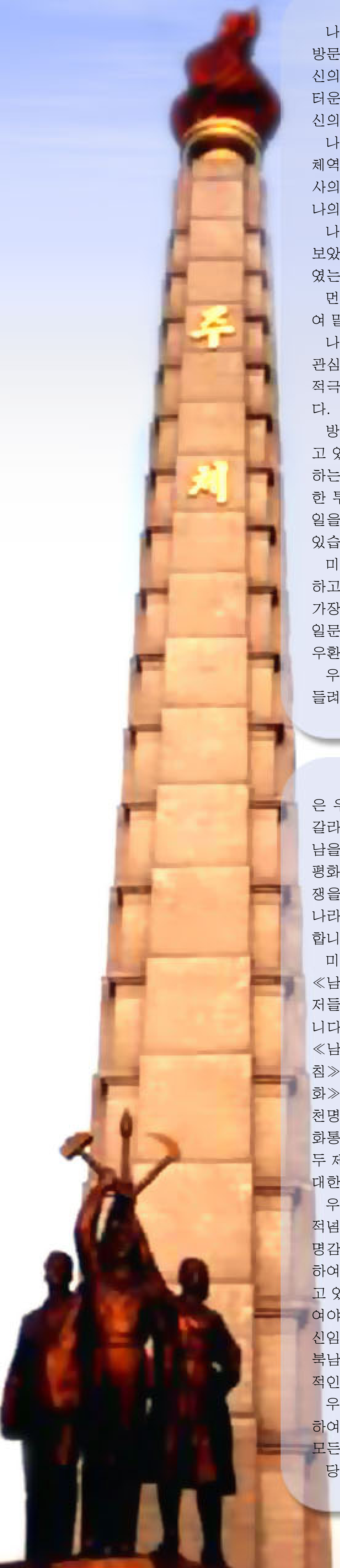
14

15 운동강좌
• 전체 청년학생운동대오의 통일단결에 대하여 (1)

16 조국통일3대현장
•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4)

일본정치리론잡지≪세까이≫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 주체74(1985)년 6월 9일



나는 당신이 오래간만에 우리 나라를 다시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에 대한 두터운 신임과 우의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일본 ≪이와나미≫서점 대표취체역사장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이 돌아 가면 그에게 나의 인사를 전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제기한 질문을 서면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당신이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하였는데 편이상 개괄하여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북남조선의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당신이 조선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후 40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가장 절박한 투쟁과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있는것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통일문제에 미국사람들이 끼여 들게 된것이 큰 우환거리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립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사람들은 분렬을 고정화하여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전략에 매여 달리고 있습니다.

분렬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옛날 중국의 증국번이라는 사람이 ≪이이쯔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수법에 매여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구라파사람들을 내세워 구라파나라들을 반대하고 있으며 아랍나라들을 리용하여 아랍나라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아세아에서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그밖의 일부 앞잡이나라들을 내세워 아세아나라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선에 대하여서는 조선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은 조선을 분렬하여 통치하려고 합니다.

조선은 통일되면 큰 나라로 됩니다. 인구만 하여도 5,000만명이 넘으며 자원도 많습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중의 하나로 될수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기지로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남조선을 좋은 비게덩어리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물고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승냥이가 맛 있는 비게덩어리를 물면 내놓으려 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사람들이 남조선을 비게덩어리처럼 물고 잘 내놓으려 하지 않기때문에 우리 나라를 통일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것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이 미국의 통제와 예속에서 벗어 나 자주적으로 나가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데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첫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민주화가 실현되면 인민들은 반드시 자주화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 들게 될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것을 두려워 합니다.

남조선에서 자주화를 실현한다는것은 곧 미국의 통제와 예속에서 벗어 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이 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탄압하는것을 지지하며 비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남조선에서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없으며 자주화도 실현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국사람들이 바라는대로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 져 살수 없으며 미국이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기지로, 식민지로 계속 틀어 쥐고 있는것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분렬시키는것이며 남조선을 미국의 통치밑에 완전히 내여 맡기는것으로 됩니다. 만일 우리가 ≪두개 조선≫을 만드는것을 허용한다면 력사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 놓으려는 온갖 책동을 반대하고 북과 남을 하나로 통일하는것이며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남침≫하려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것은 저들의 분렬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입니다. 우리에게는≪남침≫할 의사도 없고 ≪남침≫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침≫하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남조선을 ≪적화≫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이미 여러차례 천명하였으며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는 평화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북과 남의 두 제도가 공존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념원과 인류의 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립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접촉하고 대화를 하여야만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리해와 신임을 두터이 할수 있으며 대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 낼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지난해에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나라가 분렬된이래 처음으로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는 우리의 동포애적 조치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으며 이것은 북과 남사이에 오랜 기간 막혔던 장벽의 문을 열고 접촉과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서로 도와 주고 도움을 받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 기회에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숭고한 목적에서 주동적으로 북남경제회담을 발기하였으며 적십자회담도 다시 열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과 남사이에 경제회담이 새로 시작되였으며 12년동안이나 중단되였던 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경제회담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회담에서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1972년에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던 남조선측 대표들에게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한바 있습니다. 그때 나는 첫째로, 북과 남이 공화국북반부의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남조선에는 실업자가 많아서 로동자들을 서독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 팔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보내라, 공화국북반부에는 지하자원이 많다, 당신들은 로력을 대고 우리는 설비를 대여 공동으로 지하자원을 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농업분야에서 북과 남이 합작하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남조선측 대표들에게 당신들이 농민들을 위하여 일본에서 차관을 받아다 ≪새마을운동≫을 벌린다고 하는데 초가집이영이나 바꾸어 잇는 ≪새마을운동≫을 해가지고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남조선농민들을 잘 살게 하려면 관개공사를 하여 농사를 잘 짓게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관개공사를 해본 경험이 많기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관개공사를 도와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수산업분야에서 북과 남이 합작하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남조선측 대표들에게 우리의 동해어장은 한류와 난류가 합치는 곳이므로 물고기가 많다, 겨울철에는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많이 모여 들고 여름철에는 더운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많이 모여 든다, 남조선어민들이 우리의 어장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가게 하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듣고나서 남조선측 대표들은 북과 남이 합작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가 아주 좋은 안이라고 하면서 돌아 가서 보고하면 박정희도 환영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우리는 남조선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회답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두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미국사람들한테 물어 보러 다니느라고 시간이 걸린것 같습니다. 한 서너달 지나서야 남측에서 회답이 왔는데 그들은 우리가 제기한것은 다 그만두고 북과 남이 공동으로 금강산에 호텔을 짓고 기생관광

북과 남이 다같이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공통된 립장과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림한다면 토의되는 문제들에서 손 쉽게 합의를 이룩할수 있으며 실제적인 통일방안을 찾아 낼수 있을것입니다.

업이나 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입이 쓰겁고 치사스러워 그에 대하여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열린 경제회담에서 우리측은 그전에 우리가 말한 방향에서 북과 남이 합작할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측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회담을 무역상사대표단들의 회담처럼 여기면서 북과 남이 무역이나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북남경제합작을 실현하여 쌍방의 리익을 도모하자는것이 아니라 회담을 질질 끌자는것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북남적십자회담 제8차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우리측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바 있는 5가지 문제를 통털어 함께 토의할것과 5가지 의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서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자유롭게 래왕하도록 하자는것을 남측에 제기하였습니다. 북과 남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 친척들은 북남사이에 자유래왕의 길이 열리면 서신거래도 할수 있고 자기의 혈육을 찾기도 하고 상봉도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이미 합의한 5가지 의제를 일괄로 토의하며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립장을 밝혔으나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것은 두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올해에 들어 와서 우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평화적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북남국회회담은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의사를 모을수 있고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효과적인 대책을 취할수 있는 권위 있는 정치회담으로 됩니다. 북남국회회담이 실현되면 북남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고위급정치회담도 마련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 오게 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할뿐아니라 북남국회회담도 하루빨리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회담들이 있은 후에 북남수뇌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겠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이미 마련된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인민들의 기대와 조국통일의 리념에 맞게 잘 진행된다면 나아가서 북과 남의 고위급정치회담도 실현할수 있다는 립장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북남고위당국자들이 그저 마주 앉는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니며 모여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북남고위당국자들이 마주 앉으면 통일문제해결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는 훌륭한 결실을 가져 옴으로써 통일을 열망하는 온 민족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북과 남사이에 낮은 급의 다각적인 회담을 통하여 민족적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켜 근본적인 합의를 이룩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과 같은 이미 마련된 회담을 잘 진척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대화쌍방이 대화에 림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지금 북과 남이 대화에 림하는 립장과 자세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만들려는 립장이라면 남조선측은 미국의 ≪두개 조선≫ 정책에 추종하는 립장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교차승인≫이요, ≪교차접촉≫이요 하는 문제를 가지고 분렬주의자들과 맞장구를 치며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운운하는것은 바로 그들이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추종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 주는것입니다.

북과 남이 다같이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공통된 립장과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림한다면 토의되는 문제들에서 손쉽게 합의를 이룩할수 있으며 실제적인 통일방안을 찾아 낼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조선측이 대화에 림하여서도 계속 ≪두개 조선≫정책에 매여 달린다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가며 본질적인 문제토의를 회피하고 말공부만 하면서 회담을 질질 끌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대화로 되여서는 안되며 오직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북남대화는 철저히 7. 4남북공동성명에 밝혀 져 있는대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 북남대화쌍방은 진심으로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옳은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성의와 아량을 가지고 차이점을 미루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대화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마음 놓고 대화를 할수 없으며 대화를 하여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마련되였던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몇달동안이나 중단상태에 빠지게 된것도 남측이 대화상대방을 위협하는 ≪팀 스피리트 85≫와 같은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을 벌렸기때문입니다.

또한 대화상대방을 비방중상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사회에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북과 남이 서로 흉금을 털어 놓고 대화를 할수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이 다같이 통일문제해결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큰 책임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4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거기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저들의 방대한 무력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있을뿐아니라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군사적통수권까지 틀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하기 위한 구실을 얻기 위하여 미국회에서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고 있으며 해마다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며 우리 나라의 정세가 이처럼 전쟁접경에까지 이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이며 조선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할수 없고 전쟁위험을 제거할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실제적인 길을 열어 놓을수 없습니다.

중국은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자기의 지원군을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에 철수하였기때문에 조선문제의 당사자로 되지 않습니다. 남조선은 조선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는데 직접 책임이 있는것만큼 우리 공화국정부는 우리와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3자회담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게 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이 없어 지게 될것이며 조선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는 지금까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제기하여 온 요구도 충분히 고려되여 있습니다.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대하여 미국이나 남조선당국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어떠한 리유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 3자회담문제를 제기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3자회담을 열것을 촉구하였으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의 통일을 바란다면 빈말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성의 있게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해 나오기를 인내성 있게 기다릴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와의 대화에 응하고 조선의 통일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면 비정상적인 조미관계도 개선될것입니다.

(내일 계속)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6. 혁명시인 김혁 (1)

혁명은 동지들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본가의 밑천은 돈이지만 혁명가의 밑천은 사람이다. 자본가가 돈을 밑천으로 하여 치부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혁명가는 동지를 밑천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간다.

청년시절 내 주위에는 동지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는 인정적으로 사귄 친구들도 있었고 투쟁과정에 뜻을 같이하면서 얻은 동지들도 있었다.

그 한명한명의 동지들은 모두가 억만금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람들이였다.

우리 후대들이 혁명시인이라고 부르는 김혁도 바로 그런 동지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김혁은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사람이며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도 그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김혁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27년 여름이였다.

그날 한문시간이 끝나고 복도에서 상월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권태석이 뛰어와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한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차광수라는 안경쟁이와 함께 정문에 서 있었다고 하였다.

과연 정문에는 얼굴이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긴 초면의 청년이 트렁크를 들고 서서 차광수와 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광수가 자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내 앞에 손을 내밀고 ≪김혁이올시다!≫하며 스스럼없이 악수를 청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자기 소개를 하였다.

내가 김혁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낀 것은 차광수가 그에 대해 ≪광고≫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한데도 있었지만 김혁의 얼굴모습이 김원우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데도 있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김혁형을 데리고 기숙사에 가서 한시간동안만 기다려주지 않겠소? 어지간한 시간같으면 결강을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상월선생이 담당한 문학시간이구만.≫

나는 김혁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차광수한테 이런 부탁을 하였다.

김혁

≪허허, 상월선생의 문학시간이라면 모두가 오금을 쓰지 못하니 성주도 장차 김혁이처럼 문학가가 되려는게 아니오?≫

차광수는 안경테를 추어올리면서 롱을 하였다.

≪김성주라고 문학가가 못된다는 법이야 없지. 그런데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문학을 알아야 할 것 같애. 어떻소? 김혁형, 그렇지 않소?≫

김혁은 그 말을 듣자 환성을 울리었다.

≪길림에 와서 이제야 귀맛이 당기는 말을 듣는구만. 문학을 떼놓고야 혁명을 론할 수가 없지. 혁명 그 자체도 문학의 대상이고 모체니까. 문학선생이 그렇게 인기있는 선생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소.≫

≪그럼 훗날 소개해주기로 합시다.≫

나는 이런 약속을 남기고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을 끝내고 나오니 차광수와 김혁은 정문에서 불변자본이 어떻고 하면서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친구의 음성에서 풍기는 열정은 나에게도 그대로 옮겨졌다. 나는 김혁을 타고난 열정가라고 격찬하던 차광수의 말을 되새기면서 좋은 동무를 또 하나 얻게 되었다고 속으로 기뻐하였다.

≪숙소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냥 여기에 서 있소?≫

김혁은 한쪽 눈을 쪼프리고 금빛햇살이 쏟아져내리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이 좋은 날 바퀴처럼 집안에 들어가 박혀선 뭘 하겠소. 이왕이면 여기서부터 길림거리를 하루종일 거닐며 이야기나 나눕시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점심식사나 한 다음 북산으로 가든가 강남공원 같은 곳으로 갑시다. 김혁형이 상해에서 불원천리하고 우리를 찾아왔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식사도 안시키면 대접이 너무 소홀하지 않소.≫

≪길림에 와서 성주동무를 만나니 몇 끼 굶어도 배고플 것 같지 않소.≫

김혁은 성미도 열정이였지만 언행도 활달하였다.

그때 내 수중에는 공교롭게도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돈을 내지 않아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삼풍여관으로 갔다. 그 여관집 사람들이 마음씨가 고운데다가 국수를 잘 만들었다. 여관집 어머니에게 사정이야기를 하니 국수 여섯 그릇을 말아 한 사람앞에 두 그릇씩 내주었다. 김혁은 옹근 사흘밤이나 내가 기숙하고 있는 방에서 나와 함께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는 길림일대의 실태를 파악하느라고 차광수가 있는 신안툰으로 갔다.

나는 첫 대면에 벌써 그가 불같은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광수는 덜렁덜렁한 사람이라면 김혁은 불같은 사람이였다. 평상시에는 여자처럼 조용하고 얌전하게 굴다가도 일단 충격만 가해지면 쇠가마처럼 끓으면서 단김을 뿜는 것이였다. 차광수처럼 동양 국을 돌아다니면서 쓴맛단맛을 다 보았다면 풍운아였는데 그런 풍운아치고는 깨끗한 사람이였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견문도 넓고 리론수준도 높았다. 특히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은 사람이였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의 사명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김혁은 문학과 예술은 마땅히 인간에 대한 송가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후 길림바람을 좀 쏘이고 난 다음에는 견해를 발전시켜 혁명에 대한 찬가로 대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학관이 아주 헌신적이었다. 우리는 김혁의 이런 장점을 참작하여 그에게 한동안 군중문화계몽사업과 관련된 과업을 많이 주었다. 그가 연예선전대활동을 자주 지도한 것도 그 때문이였다.

김혁이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그를 ≪에젠뽀찌에≫라고 불렀다. 그를 가리켜 ≪하이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혁은 실지로 하이네나 에젠뽀찌에를 그 어느 시인보다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설에서는 주정이 강한 최서해의 작품보다도 정서가 적은 라도향의 작품을 더 좋아하였다.

우리는 김혁의 그런 취미를 두고 세상이치란 참으로 묘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서로 대조되는 것들끼리 결합되어 잘 어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차광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 ≪음과 양의 결합≫이라고 적절하게 비유하였다. 김혁의 경우에도 음과 양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남다른 문학적 개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김혁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사업을 하면서도 짬을 내어 훌륭한 시작품들을 연이어 써내군 하였다. 우리의 혁명조직에 망라되어있던 길림의 여학생들이 그의 시를 수첩에 베껴가리고 다니면서 즐겨 읊었다.

김혁은 남들처럼 종이장을 놓고 썼다지웠다하면서 시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줄부터 마지막줄까지 죄다 머리속에서 다듬다가 수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는 종이위에 옮기군 하였다.

그가 책상을 내려칠 때마다 시가 한 편씩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동무들은 ≪김혁이 또 알(시)을 하나 낳았군≫하면서 기뻐하였다. 김혁이 시를 탈고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동의 경사로 되고 있었다.

김혁에게는 공청생활을 하던 승소옥이라는 미모의 애인이 있었다. 몸매가 날씬하고 복성스럽게 생겼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단두대에라도 서슴없이 그런 기개와 담력을 가진 처녀였다.

승소옥은 공청조직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지던 그해 가을에 거리에서 그가 선동연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연설을 아주 맵시있게 하였다.

수첩에 김혁의 시를 베껴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애송한 여학생도 바로 승소옥이였다. 그가 시를 잘 읊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설도 잘하는데다가 계절에 관계없이 늘 하얀 저고리에 깜장치마를 입고 다니였기 때문에 승소옥이라고 하면 길림시내 청년들치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생활을 언제나 열정적으로 감수하고 시화해온 김혁은 사랑도 역시 열렬히 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간성도 없고 인간다운 생활도 없으며 인간다운 사랑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혁명을 하면서 사랑을 하였고 탄우속에서도 가정도 이루었다. 그들은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는 여가를 타서 종종 버들숲이 무성한 이통하강변에 나가 산책도 하고 낚시질도 하였다. 김혁이 낚시질을 할 때면 승소옥은 옆에서 고기도 따주고 미끼도 끼워주었다. 경치좋은 북산과 송화강변에서 그리고 이통하기슭에서 혁명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은 나날이 무르익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승소옥의 아버지 승춘학

첫 당조직의 기관지 볼쉐위크

이 그들의 사랑을 달가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승춘학은 삼광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신학교의 설립자이며 교장이었다. 몇해 동안 쏘련에 가서 연해주지방을 돌아다니며 공부도 하고 문명의 맛도 본 사람인 것만큼 그때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개명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고유수에 가서 창신학교를 삼광학교로 개조하고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대중조직들을 공산주의 조직, 혁명조직들로 개편할 때에도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선참으로 이해를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이런 사람이 자기네들의 사랑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남아장부인 김혁이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승소옥의 어머니는 김혁을 좋은 사위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딸이 그와 교제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남편앞에서도 은근히 두둔해주었다. 그후 오랜 기간 김혁의 사람됨을 면밀하게 주시해오던 승춘학도 결국은 그가 훌륭한 혁명가임을 알고는 딸의 의향을 따르게 되었다. 승춘학이 그들의 약혼을 허락한 날 김혁과 승소옥은 사진을 찍었다. 그 당시 승소옥이네 집에는 사진기가 있었다.

김혁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상태에 빠진 승소옥은 이통하에 몸을 던저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이 강변에서 그를 끌어내다가 겨우 진정시켜 놓았다. 승소옥은 그후에도 혁명활동에 성실히 참가하다가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의 필자인 최일천의 안해가 되어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 시집을 갔다. 비록 계모가 되어 남의 아이들을 기르는 한이 있더라도 김혁과 같은 혁명가와 일생을 같이하겠다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그의 이상이였다.

김혁의 불같은 성격은 혁명실천에서 충실성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높은 책임성과 충실성을 지닌 혁명가였다. 나보다는 나이가 다섯 살이나 위이고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내지 않고 우리가 주는 과업을 언제나 성실하게 받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김혁을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김혁은 1928년 여름부터 차광수와 함께 류하현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의 지도로 고산자동성학교에 사회과학연구회(특별반)가 나오고 반제청년동맹지부가 조직된 것도 이무렵이었다. 그때 김혁은 인류진화사와 세계정치지리, 문학, 음악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고산자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다.

내가 감옥생활을 마치고 동만쪽으로 나갈 무렵에 김혁은 고유수와 길림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조직이 준 과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나는 돈화로 가면서 그에게 서면으로 강동, 길림, 신안툰의 혁명조직들을 지도하면서 새 출판물 발간을 준비하라는 일거리를 더 맡기였다.

얼마후 돈화에서 일을 카륜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혁을 찾아갔더니 그는 우리가 준 과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내가 옥중에서 무르익힌 생각과 카륜에 가서 할 사업내용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흥분해서 자기도 당장 나를 따라 카륜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카륜으로 오되 맡은 일을 다 수행한 다음 천천히 뒤따라오라고 하였다. 김혁은 몹시 서운해하면서도 내 말대로 신안툰에 그대로 눌러앉아 새 출판물 발간준비를 다그치었다. 그럼 다음에야 카륜에 왔다.

카륜회의가 있은 후 우리는 새 출판물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새로운 혁명노선이 일정에 오르고 그 실현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할 사명을 지는 첫 당조직이 세상에 태어난 조건에서 그 사상적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출판물을 발간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김혁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카륜에 와서도 밤잠을 자지 않고 출판물에 낼 원고를 썼다. 그의 제의에 따라 출판물의 제호를 ≪볼쉐위크≫로 달았다.

우리는 ≪볼쉐위크≫를 잡지형식으로 만들어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면서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갖춘 다음 점차 신문형식으로 크게 만들고 부수도 늘이기로 계획하였다. 1930년 7월 10일에는 마침내 ≪볼쉐위크≫ 창간호가 세상에 나왔다.

이 잡지를 공청, 반제청년동맹 지부들과 여러 반일혁명조직들, 조선혁명군 소조들에 배포하였으며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학교들에도 보내여 교재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내가 카륜에서 한 보고를 해설하는 글도 그 잡지에 실리었다. 카륜회의 방침을 소개하고 선전하는데서 ≪볼쉐위크≫가 참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처음 얼마동안 월간잡지형식으로 발간되던 ≪볼쉐위크≫는 그후 발전하는 혁명정세의 요구에 따라 주간신문으로 되었다.

김혁은 ≪볼쉐위크≫의 첫주필로서 카륜을 떠날 때까지 원고집필로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불덩이같은 정열가여서 좀처럼 휴식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다가 그는 조선혁명군 소조를 책임지고 할빈으로 갔다. 김혁이 할빈에 파견된 것은 1930년 8월초였다. 길림, 장춘, 류하, 흥경, 회덕, 이통 일대에서 주로 활동해온 그에게 있어서 할빈은 생소한 고장이었다. 나도 이 도시에 대해서는 별로 파악이 없었다.

우리는 길림에 있을 때부터 할빈을 중시하였다. 이 도시의 주민 구성을 보면 로동계급이 많았다. 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가자면 장춘이나 할빈과 같은 큰 도시들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했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고 중동철도를 공격한 군벌의 배신적인 반쏘행위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할빈의 로동계급과 청년학생들은 혁명성이 강하였다. 이런 고장에 가서 줄만 잘 늘이면 많은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울 수 있었다.

우리가 할빈을 중시한 것은 거기에 국제당연락소가 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내가 길림육문중학교에 조직한 공청과 연계를 가지고 있던 국제당산하의 공청조직도 할빈에 있었다. 국제당과의 연계를 가지자면 이 도시에 우리의 통로를 내고 할빈을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혁을 할빈에 보낸 중요한 목적은 할빈일대에서 우리의 혁명조직을 늘이는 한편 국제당과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김혁이 그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가 주는 임무를 흔쾌히 받아들이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에게 국제당에 보내는 소개신을 써준 사람은 김광렬(김렬)이었다. 김혁은 떠나면서 내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가 주는 과업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해제끼는 사람이었지만 단독임무를 받아가지고 떠나갈 때에는 매번 그렇게 쓸쓸해하였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고독이었다.

시인이 고독을 자주 체험해보는 것도 문학수업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을텐데 왜 그 동무는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고 언제인가 물어봤더니 김혁은 지난날 울분을 안고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에도 고독도 하나의 좋은 길동무였는데 그런 생활을 끝장낸 다음부터는 싫어진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는 강동에서 몇 달동안 외롭게 지내다가 카륜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몇 날동안 일하는 것이 재미를 좀 볼만하니까 또 헤어지게 된다고 하면서 못내 아쉬워하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을 달래듯이 말했다.

≪김혁이, 혁명을 하자니까 이런 이별도 있는 것이 아니겠소. 할빈에 갔다오면 우리 동만에 나가서 같이 일해보자구.≫

김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성주, 할빈의 일은 걱정하지 마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직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고 웃으면서 동무들곁으로 돌아오겠소. 앞으로 동만에 나갈 때에는 맨 선참으로 나를 불러주오.≫

그것이 김혁과의 마지막 이별이였다.

그와 헤어지고 보니 내 자신도 마음이 허전해졌다.

(내일 계속)

혁명영화 ≪조선의 별≫ 중 한 장면

송시

붉은기 수호자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브레즈이브이예쯔

열병광장에 울리던 철의 소리
지금도 내 귓전에 울리어라
최고사령관의 그 음성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기쁨에 들먹이는 심장들의 분출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영광을≫

내 보노라 발걸음 높이 나아가는 열병 중대들
답례를 보내시는 영장의 그 손길
번쩍이는 서릿살 총창
빛을 뿌리는 군모의 붉은 별
그것은 정녕 백두산의 불타는 태양, 그 태양의 빛발이던가
가장 경이롭고 가장 존엄높은 이 나라의 성산에서 비쳐오는 것

장하여라 무적필승의 군대여
불덩이같은 병사들의 발걸음이여
승리만을 안아온 탱크들의 대오
지축을 뒤흔드는 무한궤도소리여
그것은 정녕 정일봉이 터치는 우뢰소리가 아니더냐
병사들의 얼굴마다에 비낀 숭엄한 맹세
자동총을 틀어쥔 병사들의 억센 손길
빛나는 그 눈동자엔 억년 드놀지 않는 백두산악의 기상이 어렸는가

내 듣노라 정의의 수호자의 목소리
사탕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없이는 살지 못한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강철의 대오 총대로 붉은기 지키리라
총대! 그것은 빵보다 더 깊이 귀한 것
마치와 낫, 붓위엔 언제나 총대, 총대가 있어
평화로운 노동의 역사가 빛나거니
총대는 진리의 광원
모든 승리의 상징

그대 장군의 손길 한번 쳐들면
온갖 검은 세력들 살길을 찾느라 아우성치고
자비를 모르는 총대앞에 공포에 질려 벌벌 떤다

그대 장군의 안광 그것은 원수의 머리위에 번쩍이는 장검
그대 장군의 시선 저 멀리 콘크리트장벽도 녹여내고
총폭탄의 뇌성을 불러 불바람을 안아오거니
그대 장군은 온 나라 수백만 총검의 숲을 일궈세우리
그대의 병사들 장군과 함께 총대의 승리를 안아오리라

그걸 지켜보던 판문점 안개도 그대를 정답게 감싸주고
그대의 어뢰정 갑판위에 나서면
사품치는 격랑도 그대 장군을 성쇄인냥 옹위하여라
최고사령관은 언제나 최전방 감시초소
총포탄이 미치는 그곳에 계시나니
하여 이 나라 아이들 즐거운 노래속에 야영소로 떠나고
사랑하는 이 나라 민중들 평온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어라

조선의 풀한포기 건드리려는 자 그 누구냐
조선의 맑은 하늘 더럽히려는 자 그 누구냐
평화로운 바다에 기어드는 해적의 무리
동서해 심연속에 수장되리라
백두의 용사들 지켜선 나라
김정일조선, 그것은 정녕 강철로 다져진 나라
조선을 건드리려는 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메리카여, 온갖 원수들이여
명심하라 조선의 경고
≪우리를 건드리려는 자 이 행성위에 피할 자리가 없다≫

병사들의 총대가 있어
머리위엔 푸른 하늘이 있고
병사들의 총대에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렸거니
조국의 병사들 언제나 총대의 기상으로 숨쉬고
언제나 최고사령관과 일심동체
병사들의 어깨위에 붉게 타는 견장
그것은 그대 장군이 수호한 붉은 기폭의 한 부분
병사들의 군모에 빛나는 오각별
그것은 백두산 장군별들의 반짝임

축포여 울어라
≪최고사령관께 영광을≫
관악이여 울려라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영광을≫

흠모

선군혁명영도의 새 역사

러시아국방성 고문인 전 소련국방성 제1부상 겸 바르샤바조약합동군 총사령관 소련원수 윅또르 꿀리꼬브

부르주아군사이론가들이 ≪국가≫와 ≪국민≫의 ≪보호수단≫이라고 일컫는 자본주의 국가군대는 반동적 제도의 옹호와 침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식민지 분할과 영토팽창, 민족분쟁으로 얼룩진 군대, 현대 역사를 놓고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무장력을 자본의 지배를 전복하고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을 전취하며 승리한 혁명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로 규정하였다.

사실상 세계대전들에서 승자의 위세를 떨쳐 온 소련군대는 연맹의 안전보장과 전쟁방지에 기본 힘을 기울였다.

연맹의 군수뇌직에서 사업하는 전 기간 나는 군인집단과 그 타격력, 군인들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국방의 기본으로 간주하여 왔다. 하여 군인들과 참모부들의 전투준비와 작전 및 전투훈련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군대를 단순한 보위기능의 수행자가 아니라 혁명수행의 핵심역량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롯한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이나 국가가 창건되고 그에 토대하여 군대가 조직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 왔다.

하지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대를 먼저 조직하시고 그것을 주력으로 조국을 광복하고 새 사회건설을 추진하시었으며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혁혁한 승리를 안아 오시었다.

그래서 조선사람들은 우리 혁명은 총대로 시작되고 총대로 승리하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조선에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선군혁명영도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규정하시었으며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고 주장하신다. 이것은 전혀 독창적인 견해이다. 이에 토대하여 그이께서는 군사중시 정치, 군중심의 영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군대로 강화하시었으며 불패의 군력으로 우월한 조선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 이신다.

객관적인 제반요인으로 난관이 겹치는 속에서도 조선혁명이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는 선군혁명영도야말로 선견지명의 정치방식으로서 우리 행성인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조선인민군과 같이 가장 투철한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무장집단이고 강력하고 전일적인 조직적 부대로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군대는 이 세상에 없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혁명영도는 조선혁명의 특수한 실정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교훈으로 보아도 매우 옳은 정치방식이다.

익측도 후방도 없이 횡포한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판가리결사전을 하고 있는 조선이 군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이 나라에서 군력이자 국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인민의 성산인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백두의 설한풍을 맞으시며 성장하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백두의 담력과 기상을 지니시고 선군혁명영도라는 독특한 정치방식에 의거하시어 그 어떤 뇌성벽력에도 정치역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조선혁명을 조선식으로 훌륭하게 이끌고 계신다.

싸운다면 싸우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산악같은 배짱, 조선이 없는 지구는 통째로 깨버려야 한다는 도고한 자존심,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총대는 총대로 제압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 이것은 오늘의 냉전에서 조선인민이 패배를 모르는 승자로 되게 하신 **김정일**동지의 명장다운 기질이다.

영웅조선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필승의 선군혁명영도는 세계정치가, 군사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18일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은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20주년을 맞으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민중은 반미투쟁의 봉화를 지펴올린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20주년을 맞으며 견결한 반미자주화투쟁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1982년 3월 18일 부산의 청년학생들은 이 땅을 강점하고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군사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광주시를 피바다속에 잠근 미제침략군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뜨리며 부산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미국 나가라!≫,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규탄한다!≫ 등의 반미삐라들을 뿌리며 반미투쟁의 봉화를 지펴올렸다.

피끓는 청년학생들의 이 의로운 장거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민중의 준엄한 심판이였으며 미제의 한국강점과 침략책동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정의의 애국투쟁이였다.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을 통하여 우리 민중은 이 땅이 결코 미국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미제와 친미군사파쇼독재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식민지암흑을 불사르고 반미자주의 타종을 높이 울린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은 친미사대의식으로 결박되었던 우리 민중에게 반미자주의식을 깨우쳐주었고 반미자주투쟁을 강화발전시키게 한 또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1982년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이 있은 이후 이 땅 도처에서 미국문화원과 공보원, 서울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식민지통치기관들을 습격하고 점거농성하는 투쟁이 연속 일어났으며 미국성조기를 불태우고 미제의 전쟁연습과 내정간섭책동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이 적극 벌어졌다.

오늘 이 땅에 조성된 정세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민중속에서 높아가고 있는 자주, 민주, 통일기운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에 차단봉을 내리우는 책동을 악랄하게 자행하고 있다.

특히 집권이후 줄곧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표방해온 부시행정부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악의 축≫폭언과 서울행각, ≪핵태세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킬 흉심을 드러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한국내정에 대한 간섭을 배가하면서 영구지배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우리 민중의 지향은 영영 짓밟히게 될 엄중한 형세에 놓여 있다.

이북에 대한 공격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현대전에는 전후방이 따로없고 핵참화에는 남과 북의 경계선이 있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민족이 공멸한다.

우리 민중은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전국민은 부시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힘있게 벌인 반미반부시투쟁기세를 늦추지 말고 반미반전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야 한다.

각계층 민중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철회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도발책동중지, 내정간섭반대, 미군철수의 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강력한 반미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리자.

현당국은 굴욕적인 대미추종행위를 걷어치워야한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꺾을 수 없는 반미자주화의지를 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21일부터 벌여놓으려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 땅에서 핵무기와 강점군을 걷어가지고 즉각 물러가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시행정부가 끝끝내 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양민학살의 피로 물든 이 땅을 미제침략군의 시체와 죽음의 매장터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7일

맥팔랜드 신병인도요청거부

한강독극물방류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 영안실 소장인 피고인 맥팔랜드에 대한 신병인도요청을 주한미군측이 또다시 거부해 각계의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서울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에 맥팔랜드의 신병을 한국정부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자주권을 짓밟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맥팔랜드로 말하면 우리 국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독극물을 대량 방류한 특등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인의 인도마저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그들이 얼마나 횡포한 침략자, 강점자인가를 다시금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오만무례한 횡포에 주눅이 들어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범인을 기어이 한국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의 부동산투기의혹, 미국 초호화주택구입의혹 제기

민주당은 15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부동산투기의혹과 미국 로스엔젤레스 초호화주택구입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대변인은 지난 87년 이회창이 변호사시절 신흥개발지역으로 떠오른 화성지역에 7000평규모의 임야를 사놓은 것은 투기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97년 이회창의 부인이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 이회창의 형과 처남의 공동명의로 183만달러상당의 호화주택을 구입했다는 교포사회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회창의 대국민사과요구
자민련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한나라당 부총재단이 3월 14일 충북지사를 찾아가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라고 권유한데 대해 정당사에 유례없는 천인공노할 행동이라며 이회창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종필은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앞으로 이런 짓이 되풀이되면 맨발 벗고 있는 것 다 벗어던지고라도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끌어내리는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지사에게 한나라당입장을 권유한 것은 공갈협박이며 이회창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각종행사

태양절에 즈음해 중국 요녕성 국제우호연락회, 인도 대외정책연구소와 인도주체사상연구회, 전인도조선친선협회에서 친선모임과 기념집회, 강연, 영화감상회, 사진전이 2월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중국 요녕성 국제우주연락회 일군들과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을 비롯한 해당 단체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언급하고 주석님을 위대한 사상가, 걸출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창건 53돌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비롯한 이북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인도 대회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기념집회에서는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하문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우간다 캄팔라시 키탄테 초등학교 **김정일**학급에서는 태양절기념 노래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 불가리아위원회 합동전원회의

불가리아 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 불가리아위원회 합동전원회의가 2월 28일 소피아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원회의에는 불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두 단체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전세계적인 축전으로 특색있게 경축하는데 이바지하면서 불가리아에서 활발히 진행된데 대해 긍지높이 결산하고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과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을 세계적인 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당면과제를 토의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불가리아대표의 귀환보고가 있였습니다.

전원회의 참석자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에 합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오늘에 다시본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3월 18일은 부산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부산미문화원에 대한 방화투쟁을 벌인 때로부터 20돌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20년전의 그날을 회고하면서 반미투쟁의 열풍을 더 거세차게 일으킬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데요. 애국청년학생들이 부산미문화원에 지른 방화의 불길은 성스러운 반미봉화였고 더이상 미국의 식민지노예로 살지않으려는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지향의 봉화, 자주와 민주의 여명을 안아올 희망의 봉화였다고 할 수 있죠.

그때를 생각할수록 감회가 깊은데요. 그럼 먼저 당시 애국청년학생들이 부산미문화원에 불을 지르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이에 관해서 알아봤으면 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유진명 : 그때를 회고할수록 애국청년학생들의 애국적 장거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어떻게 그런 성스러운 일을 단행했는가고 국민들 모두가 탄성을 올렸는데요. 물론 반미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실행할 결

미대통령을 만나는 전두환

단을 내린다는 건 쉽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볼때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참가자들이야말로 반미투쟁의 선봉투사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벌인 방화투쟁의 직접적인 동기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 우리 국민에 대한 식민지노예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였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이 땅을 강점한 이래 근 40년동안 우리 국민의 자주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가혹한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해왔던 거예요. 우리 민중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로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왔죠. 한국에 대한 식민지 주권쟁탈, 악랄한 경제적 침탈, 살인적인 학살만행 등 미국이 감행한 온갖 범죄행위가 바로 부산미문화원방화를 불러온 동기였습니다.

사회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에서 주역이였던 문부식씨의 법정진술에서도 그대로 표현됐고 당시 부산미문화원 주변에 살포됐던 삐라들에도 밝혀져 있었죠.

유진명 : 문부식씨는 법정진술에서 이렇게 토로했어요.

≪우리들의 역사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정치악속에는 언제나 미국이라는 시어머니가 이 땅의 독재자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예요. 그리고 곳곳에 살포된 삐라들에는 ≪미국은 더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한반도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미국의 죄행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규탄한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 스스로 결단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미국세력의 대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양키는 물러가라!≫, ≪먼저 미국문화의 상징인 부산미문화원을 불태운다.≫ 등이 당시 삐라들에 실렸던 내용이였어요. 이것은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우리 민중의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자 : 우리 청년학생들, 우리 모든 민중들속에 쌓이고 쌓인 반미감정이 부산미문화원방화로 폭발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문부식씨 등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참가자들의 의로운 장거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였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유진명 : 그에 대해서는 문부식씨가 최후진술에서 밝힌 바 그대로인데요.

문부식씨는 최후진술에서 10.26 박정희타살후 밝아오던 민주의 여명을 파쇼의 암흑으로 뒤덮게 한 미국의 죄행을 징벌하고 내외에 고발하기 위해서였고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를 세상에 알리고 민중에게 반미투쟁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이런 취지는 앞에서 얘기된 삐라들에도 그대로 밝혀져 있었어요.

사회자 :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단순한 방화사건이 아니고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의 분출이였고 사생결단으로 미제침략자들과 싸워 승리하겠다는 결의의 표명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그후 우리 국민들에게 반미투쟁의 의지를 안겨준 매우 의미있고 정당한 투쟁이였다고 할 수 있죠.

유진명 : 그렇습니다.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우리 민중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이 마음대로 착취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민중이 아니라는 걸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한 그런 투쟁이였어요.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는데 그 참의미가 있다고 하겠어요.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후 반미투쟁이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광주미문화원이 불탔고 대구문화원이 폭파됐고 도처에서 성조기가 불타는 등 반미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올랐어요.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얘기된 걸 보면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우리 민중의 반미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내외에 과시한 의로운 투쟁이였고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은 어떤 파쇼적 폭거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애국투쟁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애국청년학생들이 지핀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의 봉화는 90년대, 2000년대로 이어져 더욱 격렬한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승화발전하고 있죠. 오늘날의 반미투쟁은 조직화측면에서보나 투쟁규모와 투쟁형식과 방법, 그 격렬성에 있어서도 지난 80년대, 90년대에 비할 바없이 크게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유진명 : 그렇습니다. 지난 시기에 반미운동, 반미투쟁은 주로 운동대오들, 말하자면 한총련 등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됐어요. 하지만 오늘에는 운동세력들이 주도하는 반미투쟁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이 적극 합세해나서고 있죠. 반미투쟁이 각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를 조직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적극화되고 있어요.

지난 1999년 노근리학살사건폭로를 계기로 미군의 학살만행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지역시민대책위원회와 지역대책위원회들이 수십개나 조직됐어요. 재야운동단체인 전국연합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를 조직한데 이어 각지역별로 대책위원회들을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지역적 규모의 반미투쟁대책위원회들을 내왔어요. 그리고 재야단체들의 주도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반미투쟁단체들을 하나로 결집해 통일적인 반미운동연합체를 내오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어 오늘은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조직이 조직되게 됐습니다.

투쟁방법과 형식에서도 종전의 가두시위에 치우치는 형식에서 벗어나 대규모적인 반미집회와 서명운동, 성명과 호소문발표, 국제적 여론환기 등으로 발전하고 있죠.

사회자 : 부시의 악의 축망언과 부시의 한국행각을 계기로 반미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은 말그대로 반미열풍지대로 전변됐죠.

유진명 : 부시가 이른바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중들은 그것을 우리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로 낙인하고 반부시반미투쟁에 떨쳐나섰어요. 심지어 여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부시가 악의 축이라는 망언을 들고 나와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것을 반대해 주한미대사관을 항의방문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미국이 무기수출에 환장하면서도 악의 축이니 뭐니하고 트집잡아 북을 헐뜯는 것을 비난했고 미국이 한국을 대등관계로 보는가 자기네 식민지로 보는가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례없는 일이죠.

사회자 : 특히 부시의 행각을 계기로 반미투쟁이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유진명 :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환경운동연합, 민변, 자통협, 전농, 민언련, 민교협 등 603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대책위는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과 공개서한전달식을 가지고 부시의 망언과 한국행각을 규탄했습니다. 또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격문과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부시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반미항전에 부딪쳐 비참한 최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부총련은 성명을 발표해 부시가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반미투쟁의지를 똑바로 알고 이 땅에 기어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부시가 이를 무시한채 이 땅에 기어들어 전쟁모의를 벌이는 것을 7천만 겨레는 용서치 않을 것이며 이 땅의 민중들의 분노에 부딪쳐 제 생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부시의 망언과 한국행각을 반대해 700인 평화선언문이 발표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3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지역에서는 297개 단체, 기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부산에서는 80여개의 시민단체가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규탄하는 기자회견, 성명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부시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투쟁, 청년학생들의 기습시위, 성조기화형식, 소형플랭카드게재, 삐라살포, 부시행각노정들에서의 항의시위 등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죠. 우리 국민의 대중적 항거에 부딪친 부시는 순간도 마음을 놓치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다 이 땅을 도둑고양이처럼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부시호전광은 이것을 망각하고 전쟁광신증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전쟁광신자 부시는 악의 축망언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오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 땅에서 대규모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이려하고 있죠. 얼마전에 드러났지만 북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까지 짜놓고 있는데요. 제반 사실은 부시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무사치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진명 : 그렇습니다. 부시가 허장성세하지만 미국은 종이범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호정광부시가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세력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불길에 타죽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더 완강한 반미투쟁으로 부시의 전쟁책동을 분쇄, 격파해버리고 미제침략군을 반드시 몰아내고야 말거예요. 이것은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을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며 우리 민중이 다지는 드팀없는 결의인거죠.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오늘에 다시본다, 이런 화제로 유진명씨와 함께 얘기 나눠드렸습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7일~18일

높아가는 미국 핵전쟁계획 규탄의 목소리

각계에서 미국의 핵전쟁계획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등 각계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핵무기사용공격계획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지난 12일 제30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갖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부시가 인류를 파멸에로 몰고갈 핵전쟁을 획책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특히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미국의 선제핵공격에 맞서 온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투쟁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양심과 온 겨례의 투쟁의지를 그대로 대변한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온 겨레, 온 세계가 부시행정부의 핵공격계획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이를 견결히 규탄배격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핵공격계획이 전세계의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시행정부의 핵공격계획이 국제적인 핵군비경쟁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종당에는 인류파멸을 초래케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지난 1988년 핵무기소유국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불사용 담보를 공약한 유엔 군축특별회의에서 미국의 선임자들이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소유국과 연합해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오지 않는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한 것은 핵무기사용의 이같은 위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을 비롯해 모든 국제적인 군축합의들을 시종 유지해온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북의 경우 이북은 1993년에 북미공동성명과 1994년에 북미기본합의문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협정들을 채택했습니다. 더욱이 이북은 비핵국가이며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침략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가 역대 행정부들이 유지해온 핵불사용담보규약마저 뒤엎고 이북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 대해 핵선제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으니 이야말로 이성을 잃은 핵광신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치광이의 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시의 핵공격계획이 이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과 부시의 서울행각에 뒤따른 대규모 북침전쟁연습과 때를 같이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호전적 부시정권의 이북에 대한 핵공격계획이 실천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북에 대한 핵공격은 한반도에서의 핵공격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민족공멸을 의미합니다. 정말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시행정부의 핵공격계획이 알려지자마자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이 땅의 각계 민중은 물론 ***과 언론들에서 한결같이 미국을 규탄배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각계 시민단체들이 미당국자,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갖고 부시의 핵공격계획을 규탄배격하면서 투쟁결의를 다진 것은 바로 이같은 국민적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이 이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해 나선 것은 국민적 의지에 역행하는 반국민적, 반민족적 행위로써 과연 그들에게 민족의 피가 흐르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당국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부시의 핵공격책동이 초래할 민족공멸의 엄중한 사태를 똑바로 보고 전국민적인 거족적 반미반전반핵투쟁으로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북침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5일, 17일

전세계의 비난을 받는 ≪악의 축≫발언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미의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 이북을 ≪악의 축≫으로 낙인한데이어 방일중 일본국회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한 국가들에 군사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또다시 호언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세계평화를 위협했다.

부시의 거듭되는 ≪악의 축≫,≪군사행동≫등의 망발은 당사국들은 물론 미국내와 동맹국들을 포함한 전세계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다.

우선 부시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라크, 이란, 이북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미국에 경고하고 잇다.

이북은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시의 ≪악의 축≫론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위대한 영장의 선군영도로 그 어떤 침략자들에게도 섬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다≫,≪선택권은 우리에게도 있다≫,≪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압살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라고 했다.

이란의 정예 이슬람교혁명근위대 총사령관은 테헤란이 그 어떤 침공에도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카타미 대통령은 혁명승리 23돌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이란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거만한 미국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라고 미국을 지명해 비난했다.

이라크 라마단 부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도 부당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9월11일사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부시의 대북시각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상원다수당인 민주당 지도자 다쉴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이 세계도처에서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 미국무장관 올브라이트도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잘못과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문제전문가인 윌리암 테일러는 부시가 이북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북을 위협하지 말고 대화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시의 ≪악의 축≫발언은 동맹국들로부터도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다.

독일외상은 부시가 이북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대해 세계장래를 미국 혼자서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일방적인 군비증강과 군사모험주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프랑스의 외상은 미국이 반테러의 미명하에 이라크나 이란, 조선을 이른바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미국은 오직 자기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식대로 행동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프랑스는 초대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이 잘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국방상도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유럽나라들과 토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정책을 내려먹이려 했다고 반발했다. 영국 외상 스트로는 부시가 내놓은 ≪악의 축≫론에 의문을 표시했고 영국의 유럽문제연구사 브란드는 부시가 ≪악의 축≫에 대한 개념을 동맹국들과 협의하지 않고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대외관계담당위원 패튼은 ≪가디언≫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독단적인 행동을 그만두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방위청 장관 나카다니는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두고 북조선은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시의 ≪악의 축≫망발은 중국, 시리아, 큐바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비난과 반대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호전적인 부시정권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과 반대에 귀를 기울리고 침략적이고 부당한 ≪악의 축≫, 대북강경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신진섭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1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7일

김정일총비서께 남조선 청년학생들 축하문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축하문을 보내여왔다.

축하문에서 그들은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그이께 뜨거운 흠모와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축하문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비범한 예지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데 대해 지적하였다.

오늘 이북사회주의가 제국주의의 그 어떤 고립압살봉쇄책동에도 끄떡없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끝마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것은 백두의 지략과 담력을 지니신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실력과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장군님은 진정 우리 민족과 전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만민이 우러르고 받들며 따르는 21세기의 태양이시라고 하면서 축하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 6월 우리 민족앞에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조국통일운동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심으로써 오늘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는 단합과 통일의 길로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남의 열혈청년들은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앞장에 서서 조국통일의 그 날까지 한몸이 육탄이 되고 성새가 되여 달려 나갈것입니다.

경제, 문화협정체결 53돐을 즈음해 신문들 조로친선협조관계발전에 언급

17일부 평양의 신문들은 조로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53돐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이 협정은 조로경제, 문화적협조의 법적기틀로서 지난 수십년동안 두 나라 사이의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부문들간의 련계와 협조를 긴밀히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년간에 있은 두 나라 수뇌분들의 호상방문과 상봉을 통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라 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민주조선≫은 이 협정의 체결은 경제와 문화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확대하여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한결 같은 의지의 발현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친선 및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의지는 세월의 온갖 풍파를 이겨 낸것이다.

조로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구,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지금 조선과 로씨야사이에는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은 조로사이의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심화발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방문이였다.

조로친선관계는 그 강화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문제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의 적극적인 행동조치에 달려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이 기회에 뿌찐대통령의 강력한 국가건설구상실현을 위한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전투적기치

≪로동신문≫ 17일부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발표 5돐에 즈음하여 론설을 실었다.

론설은 주체86(1997)년 3월 17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조선인민군과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고귀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 준 참된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억세게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할데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사상은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 보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침략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마치와 낫우에 총대가 있다는 새로운 혁명원리를 밝히시였으며 혁명군대의 투쟁정신으로 전체 혁명대오를 무장시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이야말로 우리 혁명을 선군이라는 필승불패의 궤도우에 올려 세운 위대한 사상이며 력사상 최악의 시련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쌓아 올리게 한 비약의 기치였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장군님께서 주신 그 어떤 과업도 군대식으로 패기 있게 해제끼고 사업과 생활도 전투적으로 해 나가며 적들과의 대결에서도 총대와 같이 타협을 모르고 견결하게 맞서 싸우는것이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조선인민의 참모습이다.

우리 공화국을 중상모독한 리회창을 규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16일에 발표한 보도 제816호를 통하여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일본을 행각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중상모독하는 악담을 늘어 놓은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리회창은 일본에 가서 그 누구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해 떠들었으며 우리의 존엄 높은 정치체제까지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또한 일본상전에게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감히 우리 공화국을 해쳐 보려는 속심까지 내비쳤다.

보도는 이 모든 험담질은 민족반역자, 친미친일 2중주구로서의 그의 더러운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에 리회창따위가 애비의 친일행적을 따라 일본에 갔다온것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2의 상전을 찾아 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고 반공화국열을 올린 대가로 외세의 지지를 얻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비렬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권력욕에 환장이 되여 외세에 민족내부문제를 송사질하며 동족을 해치고 북남대결과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 오는것마저 서슴지 않는 희세의 민족반역자인 리회창역도를 준렬히 규탄한다.

존엄 높은 우리의 정치체제를 함부로 걸고 들고 우리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한 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이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우리는 리회창역도가 자기의 사대매국적이며 반공화국, 반통일적인 일거일동이 분노에 찬 우리 인민의 눈초리안에 들어 있다는것을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것을 단호히 경고한다.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은 북침공격연습

≪로동신문≫ 17일부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3월 21일부터 벌리려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현이고 그 이상의 계획적인 북침공격연습으로서 그 성격에 있어서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로골적인 군사적도발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 무슨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며 감히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리고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강도적요구를 내걸며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호전적폭언을 거리낌없이 내뱉는 미국호전광들이 례년에 없이 방대한 병력과 최신전쟁수단들을 총 동원하여 벌리려 하는 이번 북침공격작전연습이 실전으로 넘어 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미국호전광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들과 그 주구들이 끝끝내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략자들을 여지없이 격멸소탕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할것이다.

미국 전투기선정을 강박한 ≪국방부≫ 사실자료 공개

서울에서의 ≪문화방송≫에 의하면 차세대전투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주형공군대령의 가족과 변호인들이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방부≫가 미국의 전투기선정을 강박한 사실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들이 공개한 육성테프에서 조주형은 지난 1월 초 차세대전투기사업 책임자가 ≪**F**－15**K**전투기가 선정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하였다.

6.15선언 지지, 미군철수 요구서명

베닌사회주의당이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5일 베닌사회주의당 창건자, 지도자 알리 후두가 정치국성원들, 각급 당조직책임자들 1만명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학학회 고소장

미국의 독선적인 강권행위는 국제법원칙들을 위반하는 범죄

오늘 미국이 패권주의를 추구하면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독단과 강권으로 전횡을 부리고 있는것은 평화와 진보, 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될뿐아니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공인된 국제법원칙들을 무시하고 힘을 만능으로 여기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으로 인하여 오늘 국제관계에는 전례 없는 복잡성과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학학회는 국제사회에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으로부터 미국의 부쉬정권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집단임을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 량심적인 법률가들에게 고발한다.

미국은 국제관계의 최고원칙으로 공인되여 있는 국가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있다.

오늘 미국의 부쉬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는 다른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것이다.

자주권존중원칙과 내정불간섭원칙은 모든 나라가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합법적지위와 존엄을 서로 존중하고 그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침해유린하지 말데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의 일치한 념원과 요구를 실현하는 문제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들간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도 이 원칙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이로부터 국제관계의 원칙에 관한 모든 국제법문건들에서는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국가관계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규제하고 대소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헌장도 전반적인 평화와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철저히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5년 12월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서 채택된 ≪국가의 국내사항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할데 관한 선언≫은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국내외문제에 어떤 구실을 가지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주권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요소들을 반대하거나 국가주권반대를 지향하는 모든 위협을 금지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매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명백히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할데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과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법문건들에서 일관하게 확인되고 그 내용도 더욱 구체화되여 왔다.

이 원칙들에 의하여 지난 50여년동안 새로운 세계대전이 방지될수 있었고 세계의 자주화, 국제사회의 민주화과정이 추진되여 올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부쉬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국익우선론≫이라는 간판밑에 당파적 및 개인적리익을 국제법의 우에 놓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고 있다. 자기를 세계우에 군림한 초국가적인 정부로 간주하면서 제멋대로 세계를 선과 악으로 갈라 놓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함부로 걸고 드는 부쉬정권의 행위는 지금까지의 국제관계사에서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존엄유린과 내정간섭의 가장 엄중한 표현으로 된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정치, 사회, 경제제도를 비방중상하면서 저들의 요구대로 뜯어 고칠것을 강요하는것 역시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범죄행위이다.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나라의 력사와 문화, 민족적전통과 풍습, 발전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철두철미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내정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마다 ≪인권보고서≫요, ≪종교보고서≫요 하는것들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 인민들이 선택한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구실과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의 범죄적행위는 저들의 국내법을 가지고 제멋대로 남의 나라 정책을 시비하면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의 후과로 수많은 나라들에서 민족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억제 당하고 수백만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사실이 범죄의 엄중성을 보여 주고 있다.

자기의 의사를 다른 나라에 내려 먹이려는 미국의 로골적인 강권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약육강식의 법칙에 자리를 내주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현대문명의 력사에서 미국의 부쉬정권처럼 국제법적규범들을 마구 짓밟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국가의 대외정책으로까지 공포하고 실행에 옮기는 포악무도한 범죄적행위로 국제관계전반을 그토록 어지럽힌 례는 없다.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인 령토완정의 원칙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사용금지원칙을 혹심하게 유린하고 있다.

미국의 부쉬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엄중한 범죄행위는 세계제패를 추구하면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서슴없이 위협, 압살하고 있는것이다. 령토완정의 원칙과 힘의 위협 및 힘의 사용금지원칙은 매개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국제법적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무력으로 유린하려는것은 그 나라의 권리와 존엄을 빼앗으려는 침략행위이며 국가들간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위법행위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유엔헌장도 ≪모든 성원국들은 국제관계에서 그 어떤 국가의 령토완정이나 정치적독립에 대하여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 어떤 방식으로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 있으며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과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마닐라선언≫을 비롯한 많은 국제법문건들에 명시되여 있다.

그러나 집권하기전부터 벌써 세계인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강행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든 부쉬정권은 국제적인 군축합의들과 국제법적요구들을 무시하고 모든것을 오직 전쟁으로 해결하는 몽둥이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 부쉬정권의 무모한 전쟁정책으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이 재더미로 화하고 수많은 민간인희생자가 났으며 중앙아시아와 중동,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등 세계도처에 전쟁의 불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부쉬정권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공공연히 선포하고 미국의 군사비를 20년만에 최고증액을 기록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이려 하고 있으며 지어 최근에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을 예견한 새로운 핵전쟁교리까지 내돌리고 있다.

미국은 1978년의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소유국과 련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 오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담보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군축조약들이 합의, 유지되여 온 조건에서 이제 와서 부쉬정권이 이것을 뒤집어 엎는것은 세계평화와 안전분야에서 이루어 진 국제법적기초를 통채로 허물어 버리는것으로 된다.

미국은 저들이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있을뿐아니라 일본과 같은 종전의 전범국들이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추종하여 다시금 범죄의 길을 걷도록 꺼리낌없이 부추기고 있다.

부쉬정권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일본에서는 해외팽창을 위한 립법체계를 완비하려는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이 합법화되였다.

힘의 립장에 서서 전쟁의 방법으로 저들의 의사를 다른 나라들에 내리 먹이려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평화에 대한 죄에 속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미국은 국제관계의 기초로 되는 국제공약과 의무를 존중할데 대한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있다. 미국의 부쉬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행위는 조약에 따라 지닌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줴버리고 그에 배치되게 제멋대로 행동하여 국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것이다. 조약의 체결과 그 준수는 주권국가들이 국제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서로 토의합의하여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호상협조와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국제법형성발전의 기초이다.

유엔헌장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지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것이 국가들의 의무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메리카기구헌장은 ≪조약에 대한 존중과 성실한 리행은 국가들간의 평화적관계를 발전시키는 규범으로 된다.국제조약과 협정들은 반드시 준수되여야 한다≫,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은 ≪효력을 가지는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들은 이 조약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쉬정권은 세계제패를 추구하는 견지에서 국제조약을 저들에게 필요한것과 불필요한것을 갈라 2중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는데 필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적극 들고 다니고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조약들에 대해서는 의무리행을 회피하거나 지어는 조약자체를 거세해 버리는 강권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쉬정권이 일방적으로 취한 행위는 1972년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으로부터의 탈퇴, ≪교또의정서≫리행의 거부, 생물무기협약에 따르는 의정서채택의 거부, 아프가니스탄포로취급에서의 제네바협약위반 등 그 실례가 헤아릴수 없다.

그 후과로 인류의 생존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방지하며 인도주의리념을 확립하려는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은 심히 우롱 당하고 수포로 돌아 갔다.

부쉬정권의 범죄행위는 특히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부쉬정권은 선임행정부가 자주권의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우리와 채택하였던 조미기본합의문의 정신을 줴버리고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마구 헐뜯는 망동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를 감행하고 있다. 부쉬정권이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7개 나라를 핵공격의 대상으로 지정한것은 힘의 위협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적원칙에 대한 유린으로 될뿐아니라 특히 우리에 대하여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으며 사용하지도 않겠다고 공약한 1993년의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의 구체적인 조항까지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적행위로 된다.

범죄에 범죄를 낳고 있는 미국의 독선적인 강권행위가 그대로 용납된다면 국제관계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세계는 불피코 약육강식의 쟝글로 화하게 될것이다.

미국의 범죄적인 강권책동을 반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지향하여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이며 국제법률기구들과 법률가들앞에 나서는 선차적임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학학회는 세계 법률분야의 모든 기구들과 단체들, 법률가들이 미국의 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는 정의의 목소리에 합세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체91(2002)년 3월 16일
평 양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국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3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7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전국요새화, 전민무장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잘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전국요새화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함께 우리 당의 4대 군사노선의 하나로써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지여 전반적 방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기 위한 근본문제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해서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전국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대상들을 다 요새화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라의 요새화 수준을 보여주는 기본징표의 하나는 나라의 얼마만한의 지역에 어떤 시설물들이 얼마나 많이 설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역사에는 자기 나름대로 철벽을 자랑하는 큰 요새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국경선을 따라 일정한 전신까지의 제한된 지대에 건설한 것들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체로 포대와 화점, 은폐류와 차단물과 같은 군사시설들이 설비되여 있었습니다. 그 요새선들은 막대한 자재와 자금, 설비와 노력, 시간을 들여서 건설한 것이였지만 상대측의 공격을 막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시기 프랑스가 파쑈 도이칠란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마지노선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도이칠란드와의 국경선을 따라 380킬로미터의 길이를 가진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면 도이칠란드의 침략을 확고히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방어선에는 5,000여개의 철근콘트리트 화점들과 각종 반땅크 차단물들, 그리고 은폐물들이 건설되여 있었고, 20만의 정규무력과 520문의 대포, 3,200정의 기관총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들이 배치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란한 방어선도 파쑈 도이칠란드 군이 전문에서 기만공격을 하면서 마지노선 끝부분인 서북 아르덴 지역에서 쓰당방향으로 공격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오늘에 와서는 전쟁이 위력한 무장장비들에 의해서 전선과 전신, 하늘, 땅, 바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만큼 일정한 지역이나 계선에만 건설된 요새는 거의나 무의미 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적의 그 어떤 타격으로부터도 자체의 역량, 기재, 물자들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고 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자면 전략전술적 요충지들을 포함한 나라의 모든 지역에 전투진지들과 방위시설들을 꾸려 놓아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대전의 이러한 특성과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우리 혁명이 그처럼 준엄한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던 시기에도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대상들을 다 요새화하는 사업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도록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1월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그리고 주체85(1996)년 7월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내려보내시여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전국요새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85(1996)년 12월에는 일군들에게 방어건설을 빈틈없이 질적으로 해나가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무렵 일군들에게 또 다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서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출데 대한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방어건설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장군님께서는 전연과 해안선은 물론 후방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들에 방어시설들을 튼튼히 축성할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주체88(1999)년 1월과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시여 주문대피호건설을 다그쳐서 후방의 요새화를 빨리 꾸리는 것과 함께 중요 공장들과 비롯한 각종 대상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방어시설물들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시련이 겹쌓이던 시기여서 공사중에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동원에 인민군군인과 노농적위대 대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되는 기간에 새로 수많은 방어시설들을 완성해서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추진시키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전국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모든 방어시설물들을 적의 그 어떤 타격도 견뎌내며 작전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질적으로 설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라의 요새화의 수준은 방어시설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얼마만큼 설비되여 있는가 하는데 의해서 뿐만아니라 그것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설비되여 있는가 하는데 의해서 평가됩니다. 전국도처에 방어시설들을 아무리 많이 축성해 놓았다고 해도 그것들이 견고하지 못하고 전술적 요구에 맞게 꾸려지지 못한 것이라면 전쟁에서 은을 낼 수 없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수에즈운하 건설에 6년동안에 40억 3,000만달라를 투자하여 길이가 163킬로미터, 종심이 10내지 15킬로미터 되는 바브레드선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이 요새선의 전 구간에는 모래뚝을 너비가 160내지 180미터, 높이 10내지 20미터, 경사도가 60도내지 70도 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임의시각에 운하의 전 구간을 삽시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게 여러개의 200여톤짜리 지하 연료탱크와 송유관, 연료분사노즐을 갖춰 놓았습니다. 또한 요새의 지탱점들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하고 그 위에 모래가마니와 쇠그물을 씌워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설비된 바브레드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집트군의 수중특공대 습격과 포와 비행대 타격, 그리고 보트에 설치한 소화기용 펌프의 물총사격에 견디여 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집트군은 전쟁이 개시되자 거기에 4시간동안에 62개의 통로를 동시에 개척했습니다. 이 하나의 실례를 통해서도 방어시설물을 질적으로 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방어시설물을 질적으로 축성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방어시설물들을 적의 그 어떤 타격에도 견디여 내고, 임의의 정황 조건에서도 작전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축성하도록 몸소 세심하게 가르쳐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선, 모든 방어시설물들을 적의 그 어떤 타격도 견디여 낼 수 있게 질적으로 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7월과 9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당의 전국요새화 방침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기간 전국의 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기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파괴력이 큰 새로운 무기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만큼 전투시설물들을 이에 맞게 더욱 튼튼히 건설해야 적의 타격으로부터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적들의 1차 타격으로부터 이연과 기지를 보호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자면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 해야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또한, 모든 방어시설물들을 그 어떤 조건에서도 거기에 의거하여 작전전투행동이나 전시생산을 성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질적으로 설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군님께서는 군사진지들의 위치와 형태, 규모를 정하고 시공을 하는데서 전술적 요구와 사격학적 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모든 요구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끊임없는 현지시찰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러한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당의 전국요새화 방침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관철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군사강국으로,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일류급의 성세로 그 위용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우리 나라의 방어시설에 대해 논평하면서 ≪북조선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와 반타격 준비가 다 되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요새화의 위력에 대해서는 적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시기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을 한 자는 어느 한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미군이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 분쟁때, 조선반도의 유사시를 가상하여 처음으로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를 동원해서 땅속까지 깊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최신예 레이저유도폭탄 방코바스터의 효과를 시험분석한 사실을 실토하면서 북조선에서는 이러한 폭탄도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전국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명장의 기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천하제일 명장이시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만방에 떨치시는 민족운명의 수호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천출명장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것이며 선군의 기치따라 강성대국 건설의 위업을 반드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모두 6번에 나누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대표단 선출,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 방침 확정

1. 민주노동당은 3월 16일(토) 광진구 능동소재(5호선 아찬선역 하차) 리틀엔젤스회관에서 2002년 정기 당대회를 개최했다.

2. 이날 당대회에서는 총 대의원 600명 중 450명이 참가하여, 진보정당 사상 최초의 당대표 선출 경선이 벌어졌는데, 기호 1번 권영길 후보가 찬성 294표, 기호2번 정윤광 후보가 찬성 131표를 얻어 권영길 후보가 제2기 민주노동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당 부대표에는 김태일, 김혜경, 천영세, 최순영씨가, 사무총장에는 노회찬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3. 그리고 2002년 양대선거 방침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를 총 망라한 ≪민주진보진영의 양대선거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10만 범국민추진위원≫을 모집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4. 한편 이날의 당대회는 전국에서 1,000여명의 대의원과 당원이 운집한 가운데, 시종 뜨거운 열기속에 당 대표단의 유세에 호응하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발전노조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고 다가오는 양대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을 결의하였다.

5. 그리고 3월 17일(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창당 2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단 소개 등 당대회 결정사항을 확인하고, 당원 시상식과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끝≫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자위대 해외반테러활동 6개월 연장

미국의 요청- 자위대 해외군사활동 본격화

일본 자위대가 미군이 주도하는 반테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비아해에서의 반테러활동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청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반테러활동에 대한 병참지원을 하고 있는 자위대가 5월 19일까지 임무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방위청의 고위관계자는 아프간 현지에서 반테러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철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같은 방침에는 미국의 간접적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자위대의 협력 연장에는 미국의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자위대가 해외 전쟁터에 군사 장비와 병력을 파견한 것은 2차대전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계기로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와 그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위청은 자위대의 기본계획을 당장 변경하지 않고 의회에 자위대의 활동을 보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일각에서는 미국이 2단계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일본이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유럽에 이은 체니 부통령의 중동 순방, 파월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 예정, 5월 부시 대통령의 유럽 순방 등을 통해 2단계 대테러전쟁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만약 일본이 이라크 공격에 참여한다면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이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조치가 동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럴 가능성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서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자위대는 아라비아해 함상에서 미군과 영국군의 병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테러전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외교정책과 함께 이를 틈탄 일본의 군사활동 반경 확대 및 이를 지지하는 자위대 관련 법안의 개정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보혁기자
통일뉴스 2002/03/18

맥팔랜드, 영장 신문 또 불출석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 안실 전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 절차가 미군과 맥팔랜드씨 의 출석 거부로 또 다시 불발에 그쳤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8일 오후 맥팔랜드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 이었으나 본인이 나오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미군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고 이날 신문에 대해서도 불응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오 판사는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절차를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시체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음달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 판에 회부됐으나 미군측이 공소장 송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관할권까지 주장, 법무 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첫 공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박세용기자
연합뉴스 2002/03/18

사회단체 지도자들 노상 단식농성 돌입

정부는 발전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3월 18일 오후 12시 명동 민들레영토 앞에서는 발전산업 민영화(사유화)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전국민중연대 대표자들이 발전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전노조의 노동자들이 벌써 22일째 우리나라의 발전산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22일이 흐르는 동안 대화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발전 노동자들은 불법으로 연행되고 재산이 가압류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발전소를 재벌에 팔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이 81%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 (정부는) 대화에 성실히 나서야 합니다≫라며 정부의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허영구 직무대행,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홍근수 목사 등 10여명의 원로들이 참여했다.

정우혁기자
참세상뉴스 2002/03/18

발전산업 민영화 철회 촉구 집회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발전산업 민영화방침 철회 등을 촉구했다.

발전노조 노조원과 가족 등 1천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공공성이 큰 발전산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 한다≫며 ≪결국 서비스질 저하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발전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명동 한빛은행 앞까지 약 1.9㎞ 구간을 행진했으며, 경찰은 15개 중대 1천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상훈기자
연합뉴스 2002/03/17

공기업 국영화는 지켜져야 한다

지난달 25일 새벽 4시, 철도 · 발전 · 가스 등 3개 공기업 노조가 정부의 민영화정책 반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어 동시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조가 내건 민영화반대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공기업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중대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번 파업은 사상 초유의 공공노조 연대파업이었다. 동시파업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가을부터 3개 노조가 민영화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공동투쟁본부를 가동하면서 연대의 틀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합원들 속에 확고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공기업의 민영화란 바로 자본에 의한 사유화를 의미한다. 주식시장의 거의 40%를 외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말하면 이는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이자 민족의 소중한 자산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전옥답을 팔아 ≪햄버거≫를 사먹는 꼴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전략사업을 민영화하여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철도, 전력, 가스 등을 외국자본에게서 사서 쓰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의 예속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민족경제 고수 차원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내세우는 민영화의 주된 논거는 기업의 적자와 부채 문제이나 이는 공기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때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적자를 내는 곳은 철도뿐이고 이것도 정부가 공익차원에서 요금을 억눌러 온 탓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공공목적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철도청 누적 부실의 주원인을 제공해 온 것이다. 또한 전체 철도 부실의

80%를 차지하는 고속철도의 경우 정부가 사업 타당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탓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침은 국영기업 체제에서는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없으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철도 부실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은 과도한 요금인상과 수익성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 폐지 등 공공이익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철도사업은 원래 자연 독점적인 성격이 강하며 운영회사를 민간에 넘기더라도 민영화 논리의 핵심인 경쟁체제가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바뀌고 마는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철도나 전력, 가스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돼 있는 공기업부문의 민영화 문제를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다보면 공공성 확보라는 대명제보다는 비효율성 제거라는 비인간적인 길로 빠지기 쉽다. 그 부담은 항상 노동자 · 농민 · 영세시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감은 새삼 강조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정부의 구태의연한 노동정책

국회에서 민영화법안 입법을 추진하던 정부는 3개 노조가 동시파업에 돌입하자 즉시 ≪파업권을 제한 받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받지 않고 파업에 돌입한 것은 불법이며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강경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국제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동법으로 강권 탄압을 벌이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자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체포영장의 남발을 노사관계를 다루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노동계의 항의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법이 너무 엄격한 탓에 외국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노동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되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겸허하게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강제중재제도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이나,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다가 해고된 동료들을 복직시켜달라는 그들의 주장이 결코 불법시 될 수 없는 것이다.

한라산기자
민족시보 제969호 (02.03.11)

전체 청년학생운동대오의 통일단결에 대하여 (1)

≪남조선에서 광범한 청년대중을 묶어세우고 청년운동을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나서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남조선에는 미국군대가 상륙함으로써 매우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들어오자 머리를 쳐들기 시작한 반동분자들은 오늘 반인민적 책동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미국반동파들의 사촉하에 남조선에서 인민들과 청년들의 애국적인 건국활동을 극력 방해하여 나서고 있으며 민주역량을 말살하고 우리 인민을 반민주주의의 길로 끌어가려고 온갖 음모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남조선인민들, 특히 청년들이 하나로 굳게 뭉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 청년들이 굳게 뭉쳐야만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고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청년대중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중적인 민주주의적 청년조직을 내와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여러 가지 청년단체가 있는데 여러 갈래의 청년단체가 있으면 청년대중의 단결을 이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년운동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남조선에서 하나의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와야 청년운동의 분열을 방지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광범한 청년들을 건국사업에 적극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 청년조직을 내오고 광범한 청년대중을 결속하는 것은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서울에서 찾아온 동무들에게도 말했지만 남조선에서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건국사업을 잘해 나가려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망라하는 민주주의적 통일전선을 굳게 형성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통일전선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하루속히 하나의 민주주의적 청년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청년조직이 다른 민주주의적 사회단체들과 단결하여 건국사업을 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청년대중을 망라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청년조직을 내오는데서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강령과 규약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내올 민주주의적 청년조직의 강령과 규약에는 광범한 청년대중의 지향과 염원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이 조직을 적극 지지하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년조직의 강령에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남녀청년들을 다 망라하는 대중적 청년조직으로서의 그 성격을 똑똑히 밝혀야 하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이 조직의 근본목적이라는 것을 뚜렷이 내세워야 합니다. 강령에는 또한 이 조직의 당면과업을 밝혀야 합니다.

. . .

규약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규약에는 청년단체의 조직과 구성원칙, 동맹원의 의무와 권리를 비롯하여 이 조직의 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야 합니다. 특히 조직에 들어오는 절차를 옳게 규정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조직에 들어오는 절차를 옳게 규정하여 응당조직에 망라될 수 있는 대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강령과 규약 조안이 작성된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청년대중 속에 들어가 해설선전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단체가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대중적 청년조직의 민주주의적 강령과 규약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잘해야 청년들이 그 청년조직결성의 정당성과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중적 청년조직에 적극 망라될 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청년들을 민주주의적 청년조직에 결속하고 청년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단체의 간부대열을 잘 꾸려야 합니다.

대중적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아무리 좋은 강령과 규약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간부대열을 잘 꾸리지 않는다면 광범한 청년대중을 묶어세울 수 없으며 청년단체의 역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청년단체의 간부대열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청년단체의 간부대열은 사상적으로 건실하고 투쟁정신이 강하며 조직력이 있는 좋은 동무들로 꾸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난관에 부닥쳐도 동요하지 않고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청년대중을 힘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단체의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려면 지금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일군들을 실지사업과정을 통하여 꾸준히 교양하고 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양성기관을 통해서도 청년간부들을 키워야 합니다. 남조선 실정에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야간강습소 같은 것을 조직하고 거기에 좋은 청년들을 받아들여 청년간부로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 청년운동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온갖 파벌적 경향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나라는 파쟁 때문에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결국 일제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도 파쟁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종파분자들은 단결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울 대신에 파쟁에만 눈이 어두워 날뛰었습니다. 종파주의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쳤을 뿐 아니라 청년운동에도 극히 해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해방된 오늘에 와서까지도 파벌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남조선의 청년일군들은 청년대열 내에 파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자그마한 종파주의적 경향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청년들 속에서 파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청년조직 내에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조직규율이 약하면 조직의 결정과 지시가 잘 집행될 수 없으며 파벌적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청년조직 내에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청년들 속에서 조직의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무규율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며 종파주의가 침습

➡

광고

PDF자료집

진보정당

노작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진보정당사
4.19시기까지의 진보적 합법정당운동(한국전위조직운동사)
사회대중당(정치사전에서 발췌)
진보정당 약사(민노당 홈페이지 발췌)
통일전선론(통혁당-발췌)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한국청년전위의 임무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진보정당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
한총련 운동가들을 위한 진보정당 건설관련 1문1답
유시민의 100분토론

주요논문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
운동진영 일각에서 사회주의를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실천

민주노동당의 강령
창당선언문 / 강령 / 민주노동당 당헌

민주노동당 주요활동
민주노동당의 재창당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
민주노동당과 한총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현시기 남조선 청년운동의 과업, **김일성**주석 1945 11 19)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특히 씩씩하고 용감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열망하는 청년들을 민주주의깃발아래 튼튼히 결속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광범한 청년들을 하나로 결속하기 위해서는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해야 합니다.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조선청년들을 결속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줄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는 것은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 . .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하는 데서 자본에 의하여 제한받고 자본의 통제를 받는 미국식 ≪민주주의≫, 다시 말하여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아니며 또한 쏘련식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정권에 참가하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인민적 민주주의입니다. 인민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혁명과업이 수행되면 농민들은 봉건적인 착취관계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며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민족자본가들도 기업활동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애국적 청년들을 굳게 결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국사업은 결코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강한 조직적 투쟁을 전개해야만 반동분자들을 타도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고 새 조국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오지 않는다면 청년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굳게 묶어세울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청년동맹은 명칭 그대로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는 무산청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지만 그 처지로 하여 공청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당 공청에 들어야 할 노동청년, 빈농출신의 청년들도 들지 않고 공청에서 하는 사업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악선전을 많이 한 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공청조직 외에 기독교청년회, 백의청년동맹 등 여러 청년조직이 있으며 다른 당파에서는 청년들을 자기 당에 끌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하는 단일한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오지 않는다면 중요한 혁명역량인 광범한 청년군중을 하나로 결속할 수 없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완전히 분열될 수 있습니다.

. . .

우리에게는 민주청년동맹을 내오고 거기에 광범한 청년들을 묶어세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 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공통된 임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의 청년이든지 나라를 사랑하고 새 조선 건설을 열망하는 청년이라면 다같이 민주주의혁명을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바쳐야 합니다. 사실 지금 노동자, 농민 출신의 청년들뿐 아니라 다른 계층의 청년들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지지하고 민주조선건설에 적극 참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을 하나의 청년조직에 묶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유리한 환경에서 청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 .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일구국군들과의 공동행동을 실현하여 그들을 전취하였는데 오늘과 같이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유리한 조건에서 각계각층 청년들을 전취하지 못할 근거란 없습니다. 동무들이 청년대중 속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모든 애국적 청년들을 튼튼히 묶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적 투사들인 청년열성자들은 응당 청년운동의 선두에 서서 광범한 청년대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할 의향을 가진 모든 청년들을 묶어세워야 합니다. 애국적 청년이라면 신앙과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다 민청조직에 망라시켜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이 우리 나라의 계급구성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혁명의 기본역량을 이루고 있는 것만큼 노동청년들과 농민청년들을 쟁취하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사업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민청조직노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요구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공청의 좁은 테두리안에 주저앉아서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이런 협애한 견해를 극복하고 민청조직노선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모든 민주청년열성자들은 광범한 청년들에게 왜 오늘 공청을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옳게 이해시켜 그들이 민청조직노선의 정당성을 똑똑히 알고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도에서 하루속히 청년열성자들의 회의를 열고 민청조직을 내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민주청년동맹을 빨리 조직하고 청년들을 하나의 청년조직에 튼튼히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오늘 회의 정신을 받들고 대중적 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 데 대하여, **김일성**주석 1945 12 29) (내일 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3호)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그 구심점 (4)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민족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닻을 올린 그때로부터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에 서시여 민족구성원들의 힘을 결집하고 민족의 운명 개척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령도해오시였던 것이다. 하기에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우리 민족의 자주적 념원의 최고 체현자, 대표자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중심으로,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 것이다. 정녕 **김일성**주석은 어제도 오늘도 오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주고 담보해주는 민족의 령수인 것이다.

그러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떻게 되어 민족대단결의 중심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그것을 철저한 민족자주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제시하시고 탁월한 령도예술로 그것을 실천해온 불멸의 업적과 그로부터 지니시게 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높은 권위에 기인된다 할 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찍이 민족대단결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켜 민족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임을 밝히시고 민족대단결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와 방도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리론실천적 해명을 주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 명시하신 민족단합사상은 전체 민족구성원들을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로 결집시키는 사상정신적 기초로 되고 있다. 주체적인 민족단합은 북과 남의 어느 일방으 요구나 리해관계가 아닌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고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리념이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또한 이러한 민족단합 사상을 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투쟁의 매 시기 정확히 구현하여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8.15 해방후에만 하여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라는 구호를 추켜드시고 전체 민족구성원들을 민족통일전선에 결집시켜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에로 이끄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북과 남의 이질적인 체제를 다같이 수용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 데 대한 방안의 천명,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 기초, 기본원칙, 구체적 방도들을 정연하게 체계화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그 분께서 온 민족을 하나의 주체적 력량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권위는 사상, 령도, 업적, 인덕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절세의 위인, 민족의 령수로서의 권위이다. 그것은 인류사상 그 누구도 지녀본 적이 없는 가장 높으신 권위이고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절대적 권위이며 그 어떤 힘도 초월하는 견인력과 감화력, 추동력을 지닌 가장 위력한 권위이다. 그러한 권위앞에서는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한평생 반공에 섰던 사람도, 승공통일을 웨치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정치인도, 억만부호들도, 유신론자도 민족의 공통성의 분렬로 인하여 생긴 북남 사이의 차이성보다 더 크며 민족의 리익이 개인, 계급, 계층의 리익보다 더 중요하며 민족적 위업이 가장 성스럽고 숭고하다는 진리를 자각하고 과거의 어지러운 것과 결별하고 새 길을 걸을 각오를 다진다. 또 김구가 민족의 명맥의 상징인 듯 간수해오던 상래림정의 법통 을 뜻하는 인장까지도 스스럼없이 내놓고 최덕신이 자기의 운명을 서슴없이 의탁한 것처럼 누구나 그 앞에 서면 머리를 수그려 감복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인간을 매혹시키고 각이한 주의주장, 리념, 정견 등 온갖 차이성을 초극하고 민족공동의 위업의 정당성을 인정시키는데 바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권위의 위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민족을 결집시키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계속)